

■ (언론 동향) 2021.6.28. "농업경제신문" 보도내용

○ 비료 업계의 손해 보는 장사? 비료 업체 "가격 현실화 필요"

국내 무기질비료 업계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인산암모늄 등의 원자재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반면 비료 가격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 업계는 비료 납품처인 농협중앙회에 비료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비료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소는 중국(48%)·중동(46%), 암모니아는 인도네시아(39%)·사우디아라비아(35%), 염화칼륨은 캐나다(65%), 인산이암모늄(Di-ammonium Phosphate, DAP)은 중국(99%), 유황은 일본(92%)에서 수입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의 해상운임 인상과 인도의 입찰 수급 불안, 중국 비료 수출 통제 강화, 국제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 대비 무기질 비료 제조의 필수 성분인 요소 66%, 염화칼륨 42%, DAP 56%로 급등했다.

비료 업계에 따르면 남해화학, 팜한농, 풍농, 조비, 한국협화, KG케미칼 등 국내 주요 무기질 비료 업계의 비료 부문 경영 실적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비료 업계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6개 생산업체(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KG케미칼)는 지난 4월초부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때문에 경영 위기에 내몰렸다"며 "비료 납품처인 농협중앙회에 계약단가의 인상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비료 업체가 수년간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농협중앙회 중심의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6. 28.(월)

농협중앙회는 국내 무기질 비료 중 90% 이상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45%를 기업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한 뒤 농민에게 되팔고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요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지만 농협은 비료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렸다"며 "농협과 계약업체의 단가 조정이 안 돼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료 업계가 납품계약서에 따라 가격 인상을 농협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업체들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원자재 불안정한 수급과 가격 폭등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상 운임비도 증가로 원자재 가격은 점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요소는 25일 기준 중국산 프틸 요소가 지난주 대비 23달러가 인상되어 최고 470달러/톤이고, 그레놀 요소도 해상운임 25~30달러가 포함되어 480달러/톤이 예상되고 있다.

DAP(인산암모늄)도 북미·남미의 수요 강세로 6월 25일 FOB 568달러/톤으로 지난해 11~12월 365달러/톤보다 56% 급등했다. DAP는 중동 암모니아 공장 가동정지로 당분간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전망돼 7~8월 가격은 지난해 11~12월보다 78~91%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화칼륨도 북미·남미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다. 현재 국내 수입가격은 6월 25일 CFR 333달러/톤으로 지난해 11~12월 235달러/톤보다 42% 급등했다.

비료 가격이 상승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료 업계 관계자는 무기질 비료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 주장했다.

비료 업계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가 가중된다는 것과 관련해 무기질비료가 농업경영비 중 차지하는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로 2010년 3.17%에서 2019년 2.51%, 2020년에는 2.4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